

존경하는 한국로봇학회 회원 여러분,

COVID-19 바이러스로 인해 전 세계가 당황스럽게 시작한 한 해가 충격 속에 저물고 있습니다. 2020년대를 준비하는 첫해로 여러 가지 계획을 가지고 시작하였으나 예상치 못한 COVID-19 바이러스로 인해, 당혹감 속에서 기존 사업들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한 한 해가 되었습니다.

2020년 1월 첫 이사회를 오프라인 회의로 진행하고, 그 이후의 모든 이사회와 총회까지 온라인 회의로 진행하였습니다. 첫 이사회 후, 바이러스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매년 1월에 개최하던 한국로봇종합학술대회를 8월로 연기하고, 사회적 거리 두기에 따라 행사장에서 직접 참여하는 분들의 숫자를 제한해야 함에 따라, 주요 강연과 행사에 대한 온라인 중계와 동영상 논문 발표를 동시에 준비하였습니다. 많은 분들의 수고와 걱정 속에서 진행되었는데, 역대 최대 655명 등록과 함께 학술대회 개최를 알리는 개막식에서의 감격은 평생 잊을 수 없는 기억이 될 것입니다. 구자춘 조직위원장, 김진환 프로그램위원장을 비롯한 조직위원들께 감사의 마음 전합니다. 또한, 역대 국내학술대회 중 가장 많은 전임 회장님들께서 참석하셔서 큰 격려와 도움을 주시고, 어려운 시기임에도 많은 회원 분들이 함께 참여하셨습니다. 마음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와 함께, 일본 교토에서 진행하려 했던 UR 2020 국제학술대회를, 온라인 학술대회로 전환하여 2020년 6월 개최하였습니다. 온라인 실시간 발표와 동영상 발표를 혼합하여 진행하였는데, 개인별 혹은 국가별 네트워크 상황에 따라 실시간 발표가 끊어지는 경우가 발생하여 당황스러웠지만 좌장 분들의 수고로 무사히 마칠 수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온라인 국제학술대회를 진행하고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노하우들이 학회에 축적되었습니다. General Chair로 수고하신 정낙영 교수와 이주호 교수를 비롯한 조직위원들, 학술대회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이 안정되고 나면 교토에서 오프라인 학회로 다시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또한, 인공지능 및 로봇틱스 여름학교도 온라인으로 개최되었습니다. 온라인으로 하면 소통과 실습 등이 어려워져 교육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었지만, 설문조사 결과 교육 만족도가 만족 이상 70.6%, 보통 이상 96.5%로 매우 효과적인 교육이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여름학교가 우리 학회를 대표하는 프로그램으로 자리를 잡은 것 같아 매우 기쁘고 든든합니다. 어려운 교육 환경에서도 수고하신 김은태 교수와 연사 분들과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온라인 학술대회로 진행된 ROMAN 2020, IROS 2020를 화상회의를 통해 지속적으로 후원하고, Best Paper Award on Cognitive Robotics을 선정, 지원함으로써 우리 학회의 국제적인 위상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비디오 논문을 포함한 국내 논문지 서비스 홈페이지를 새롭게 구축하고, 국내외 논문지의 질적 개선을 위한 노력도 지속되었습니다.

돌아보면, 2020년은 학회 운영 및 학술대회의 디지털(온라인) 전환이 시작된 원년으로 기억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국내외 대부분의 학술대회가 온라인 혹은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개최되었고, 어려움을 겪었지만 나름 장점도 발견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향후 미래사회는 코로나 바이러스와 함께 살아가는 ‘위드 코로나’ 시대가 펼쳐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언택트 모임과 학술대회가 뉴노멀이 되고, 이를 위한 다양한 기술들이 출현하고 경쟁하는 시대가 될 것입니다. 우리 학회가 올해의 경험을 바탕으로 선도해가길 기대해 봅니다.

끝으로, 지난 1년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학회를 무난하게 이끌 수 있었던 것은, 많은 일들을 함께 감당해주신 부회장님들과 이사님들의 희생과 봉사가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바쁜 중에도 온라인 회의에 참석하여 많은 조언과 도움을 주셨고, 온라인 화상회의였지만 대화 속에서 서로 만나고 더욱 기여하고 싶어하는 열망을 가슴 뭉클하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마음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행사 연기 및 그에 따른 후속 대응, 오프라인 행사에서 디지털 학술대회로 전환되면서 발생한 많은 업무 부담을 감당해준 학회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의 마음 전합니다.

COVID-19 바이러스로 인해 많이 불편하고 불안한 겨울이지만, 미래에 대한 희망과 담대함으로, 최후 승리하는 그날까지 건강하고, 가정에 행복과 축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12월

제17대 회장 유범재 드림